

탄탄히 쌓아온 내신+수능 지망 전공 바꾼 고3에 기회 줬죠



선배들의 전형별 합격기
학생부교과전형 ③



윤수희

고려대 철학과 1학년
(충북 충주여고 졸업)

어릴 적부터 교사를 꿈꾸며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했다. 자연스럽게 좋은 성적을 유지했다. 한데 특정 과목이나 전공에 대한 호불호가 없다는 점은 대입 준비 과정에서 고민을 키웠다. 강점을 발휘할 전형을 찾아 학생부교과전형에 눈길이 갔다. 결국 수시 6장 중 5장을 교과전형으로 응시, 모두 합격했다. 고려대 철학과 1학년 윤수희씨의 대입 도전기를 들어봤다.

취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Q. 교과전형을 주력 전형으로 선택한 이유는?

어릴 적부터 선생님을 꿈꿨고, 고교에 입학한 후 사회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성적과 학교생활을 고루 신경 썼고, 나름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3이 되어 학생부를 살펴보니 사회교육부터 미디어까지 다양한 활동이 담겼더라고요. 학생부종합전형에 도전했을 때 진로가 명확한 지원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겠다 싶었죠.

마침 교권침해 이슈가 불거졌고, 서울 주요 대학에 사회교육과를 개설한 곳이 적어 진로에 대한 고민도 커졌고요. 인문 계열은 대학 졸업 후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 학교를 우선하는 것도 괜찮다는 조언에 결국 지원 학과의 폭을 넓혔어요. 모의고사 성적이 나쁘지 않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요. 결국 교과 성적의 비중이 크고, 진로 역량은 상대적으로 덜 보는 추천형 교과전형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수시 6장 중 5장을 고려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홍익대 교과전형으로 지원, 모두 합격했어요.

Q. 학교 성적은 어떻게 관리·유지했나?

수업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려고 한 습관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해요. 헛갈리면 넘어가지 않고 선생님께 질문했고, 시험 전엔 교과서·학습지를 '통암기'하며 배운 것을 소화했어요. 특히 스스

2022학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대학에 정시전형과 추천형 교과전형이 급증하면서 대입 지형도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 정시전형으로 합격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전형별·대학별 특징과 선배들의 합격 비결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_편집자

TIP**선배의 선택 과목&선택 팁**

▶ **교과 선택 과목:** <윤리와 사상> <정치와 법> <세계지리> <경제>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확률과 통계> <화법과 작문>

▶ **수능 선택 과목:** <언어와 매체> <확률과 통계>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인문 계열을 지망했기에 학교 선택 과목은 사탐을 중심으로 선택했어요. 다른 주요 교과는 등급을 우선했고요. <경제> <세계지리>는 부담스러운 역사 과목을 피해 선택했는데 의외로 재밌었어요. 수능 국어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것도 <화법과 작문>의 긴 지문보다 답이 떨어지는 문법 문제가 적성에 맞아서였거든요. <경제>도 그래프나 수식을 통해 현실 문제를 이해하는 게 재밌었고, <세계지리>도 지구과학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 흥미로웠어요. 수업을 들으면서 인문-자연을 넘나드는 성향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 점에서 학교 선택 과목은 등급을 고려하되 한두 과목은 본인의 적성에 맞거나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 도전해보는 것도 추천해요. 미리 과목의 목차나 내용을 살펴 성격을 알아두면 과목 선택은 물론,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진로를 설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로 선생님이 되어 가상의 학생에게 가르치듯 설명하며 공부했어요. 말로 하니 더 잘 기억하고, 외웠다고 생각한 부분에서 놓치거나 이해 못한 부분도 발견하며 자연스럽게 심화 학습까지 할 수 있었죠. 정기고사는 한 달~한 달 반 전부터 시험 범위에 맞춰 학습 일정을 계획한 것도 공부 습관을 잡고, 최종 1.7등급 수준의 성적을 얻는 데 도움이 됐죠.

Q. 수능 대비는 어떻게 병행했는지?

수시 최저 기준 충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국어 영어 수학은 고1 때부터 시험 기간이 아닐 때 틈틈이 준비했어요. 배운 범위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풀어보니 내신 문제와 달리 고교 전 과정이 범위인데다 문제에 여러 개념이 복합적으로 반영되고, 풀이 방식도 까다롭더라고요. 다행히 완벽하게 이해해온 습관 덕분에 개념 학습 대신 문제 풀이부터 할 수 있었어요. 고3이 되어 사회탐구와 한국사까지 준비하려니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3학년 1학기까진 학교 시험과 수능을 함께 대비해야 했기에 오전 7시 30분까지 등교해 학

교 정독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자습했어요. 국어는 김승리 강사,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는 임정환 강사의 대성마이맥 인강, 수학은 교육특구 학원 수업을 들었는데, 심화 문제를 많이 접해 도움이 됐어요. 국어·수학은 2등급,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는 모두 1등급을 받아 고려대의 최저 기준을 충족했어요.

Q. 교과전형을 염두에 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교과 성적도 무용지물이니 수능도 꾸준히 대비하길 추천해요. 또 원서를 접수할 시기가 됐을 때 꿈이 바뀌거나 현실적인 조건으로 종전의 지망과 다른 학과를 지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내신 성적어느 정도 확보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 한두 번의 시험 결과로 일찍 포기하진 않길 권해요. 또 생각보다 전형이 다양해 자신의 강점을 부각할 대학·전형을 찾는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세요. @